장로회전국연합회 57회기 3차 임원회의

하계수련회 오는 8월 29일부터 양일간 덕산서 개최

장로회전국연합회(회장 황제돈 장로) 제3차 임원회의가 지난 7일 신수동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오는 8월 29일부터 진행되는 장로회 하계수련회에 대한 안건들이 다뤄졌다.

오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덕산군 소재 스플라스 리솜에서 진행될 제53회 하계수련회는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전 11시부터 등록이 시작되며 이후 개회예배와 특강 토론회 세미나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히 올해 특강은 경제학 박사인 성결대학교 총장 정희석 장로를 초빙해 은퇴 이후의 경제적 삶과 재테크에 대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회원상호간 은혜 나눔을 주제로 조별로 주제 토론도 이어져 이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첫날 개회예배는 총회장 홍사진 목사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며 내외빈 들의 격려사와 축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임원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총무 장영만 장로의 사회로 직전회장 김종현 장로의 기도, 신수동교회 임시영 목사가 '예수를 알고 믿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오는 18일 하계수련회

제2차 실행위원회 갖고 수련회 일정 점검

남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이장호 장로) 제2차 실행위원회가 지난 6월 28일 오전 금천구 소재 채선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회의 경과보고와 임원회 보고, 회장 및 임원활동보고 등이 있었다. 안건토의는 오는 18일부터 진행될 하계수련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18일부터 양일간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키로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주제로 200여 명의 남전도회전국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날 오후에 진행될 세미나는 남전도 부장 강명국 목사가 강사로 나서서 세미나를 인도하며 이어서 건강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저녁시간에는 심리상담학 박사 이병준 목사가 나서서 '남은 인생 남는 인생만들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병준 목사는 "가족이해를 통한 성격형성의 비밀을 알고, 나와 배우자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고 수용하면 가족의 행복은 언제나 내 삶의 에너지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정의 중요성과 남편 아내 자녀에 대한 코칭을 주제로 강의를 전하고 있다.

둘째날 오전에는 족구대회도 진행된다. 지방회를 4개팀으로 나눠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우승팀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개회예배시 설교는 총회장 홍사진 목사가 나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며 마지막날 파송예배는 비산동교회 성태동 목사가 설교한다.

성결신문사 후원이사회 개최

"복음의 전달과 기쁨 전하는 메신저 되길" 당부

성결신문사 후원이사회(회장 박근주 장로)가 7월 5일 과천시 소재 모 음식점에서 열렸다. 1부 예배 및 2부 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이광섭 장로(후원회 총무)의 사회로 시작하여 윤세곤 장로(부후원회장)의 기도, 고문 강규열 장로의 말씀, 교단화합과 성결신문사 발전을 위한 합심기도, 고문 이철구 장로의 폐회 및 애찬기도의 순으로 드려졌다.

이날 강규열 장로는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되새겨 교회와 사회 도처에서, 먼저 다가가 미소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격려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자"고 당부했으며 "성결신문이 지쳐있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메신저가 되도록 우리 후원이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격려했다.

후원회장 박근주 장로는 "성결신문이 기다려지는 신문 지금보다 더욱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여 교단 정론지로서의 틀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본지 사장 김종현 장로도 경과보고와 함께 인사말을 통해 "교단내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그때마다 교단 언론지인 성결신문을 향해 크고 작은 유무형의 압력도 있었지만, 후원이사님들의 기도와 관심덕분에 편향적이지 않는 신문을 제작할 수 있었다"며 인사했다. 또한 "앞으로도 성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애독될 수 있는 신문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성결신문 후원 이사회는 지난 2012년 발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말씀의 초대 | 출 20:8

대체공휴일

문제영 목사
새소망교회
서울남지방회장

한국에서 2004년부터 실시된 주 5일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주말에 가족끼리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이 일상화 되었지만, 여전히 긴 노동 시간으로 인해 주중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우리는 쉼을 위해 노동하지만, 노동을 위해서도 쉼이 필요하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 20:8). 이것은 십계명의 제4계명이며, 창세기 1-2장의 창조 이야기를 근거로 한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함으로 창조를 완성하셨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도 또한 주기적으로 안식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출 20:11).

출애굽기 20:22-23:19에 나타난 언약법전은 자유인에게 왜 일곱째 날에 노동을 멈추라고 명령하는가? 그것은 결코 자유인을 명령이 아니라, 종과 나그네, 가축까지도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종을 소유한 자유인이 스스로 노동에 참여했을까? 종이 스스로의 의지로 쉼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 중단'이라는 계명은 매우 급진적인 조치였다. 이 명령은 자유인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요구였고, 동시에 쉼을 누릴 수 없는 약자들에게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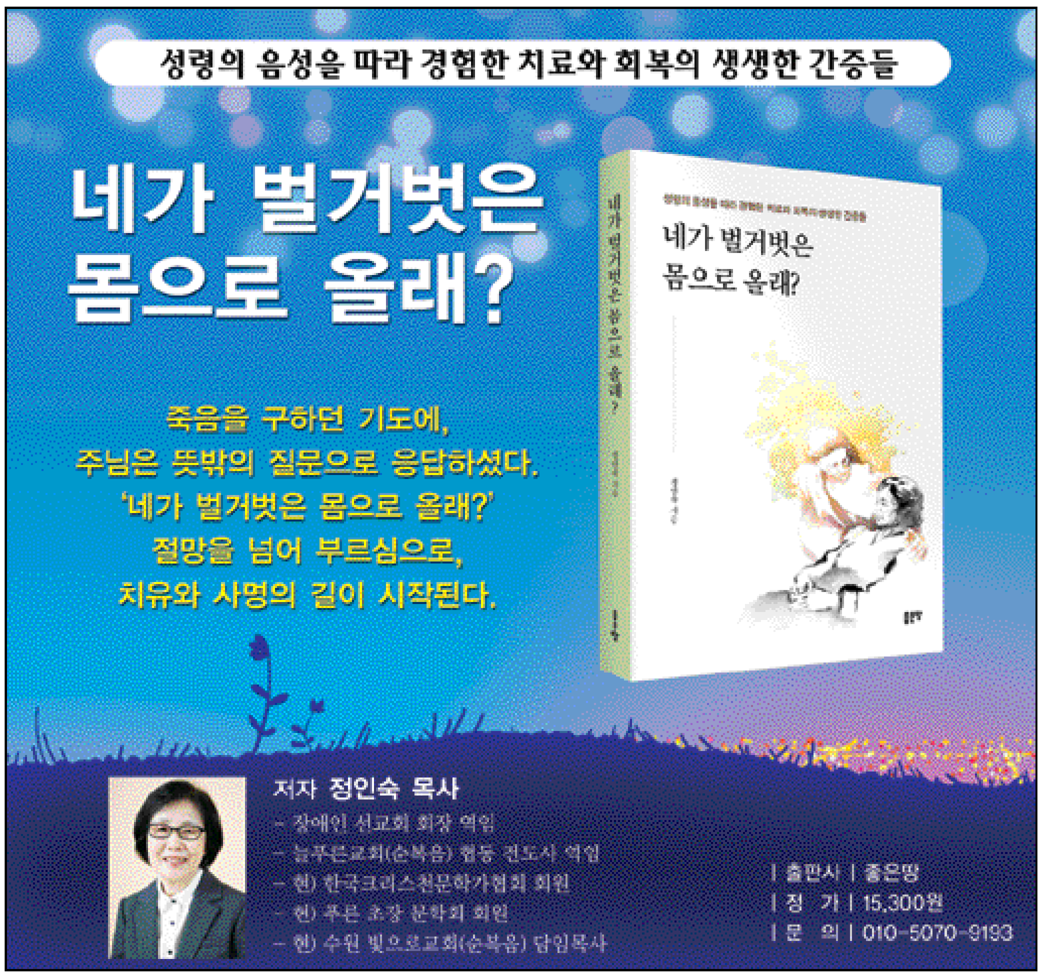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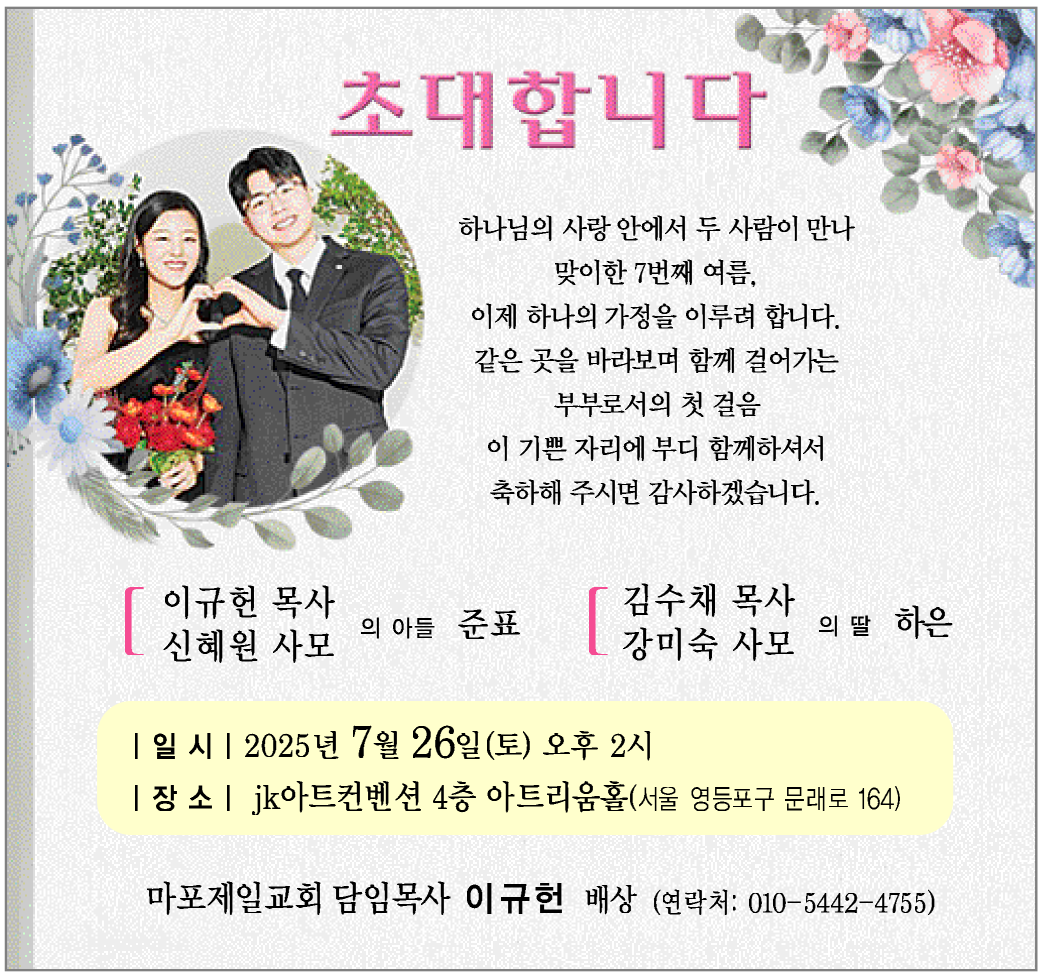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에 쉬고", "일곱째 해에 땅을 경작하지 말라"는 명령은 공동체적 상생의 정신을 반영한다.

프레타임은 언약법전 속 하나님을 '사회 정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으로 설명한다. 이스라엘공동체는 거룩함과 정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묻고 숙고해야 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언약법전은 약자라 할지라도 쉼과 삶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들에게 쉼은 최소한의 권리였으나, 스스로는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었다. 약자는 강자의 구조 속에 예속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경은 자유인에게 노동을 멈추라는 신의 명령을 통해 약자도 '쉼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세계인권선언 제24조에는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노동 시간의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브라울릭은 이 조항이 신명기 5:14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설명한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노동권의 토대가 성경의 가치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은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55조 1항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되었고, 2014년부터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는 대부분 월요일로 지정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가?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들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 단 하루만을 휴일로 보낸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교회 안에서도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교회가 노동자의 쉼을 존중하는 공동체라면, 구성원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쉼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됨의 회복이며,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에서 발췌